

# 長曰 良乙那의 典據 이것이 瀛洲誌다

瀛洲誌  
 瀛洲在 舍羅道南海中水路九百七十餘里本九韓之一或於  
 七羅元時創號或稱耽羅新羅時所封或稱耽羅百濟時  
 所封也亦有秦岳時其中張左右翼如一字橫鋪名曰漢孛山  
 而以共雲漢可孛引之名也此所謂瀛洲地中之稱神山也  
 太初無人物忽有三神人從地中湧出于漢孛山北麓獲壤地  
 品字之穴名曰慕興穴三人之出正當九韓時長曰良乙那次  
 曰高乙那三曰夫乙那狀貌甚偉器度寬豁絕無人世之態也  
 皮衣肉食常以遊獵爲事不成家業矣一日登漢孛山上望見  
 紫泥封木函自東海中浮來欲留不去三人相謂曰異哉彼物

## ◇ 眞本 瀛洲誌

오늘날 까지 濟州지역에서 出刊된 濟州道誌(1980년刊)를 비롯한 몇몇 著作物을 보면 耽羅의 古代史를 밝히는 과정에서 반드시 瀛洲誌를 등장시켜 그 내용을 引用하는 것이 하나의 特徵처럼 되어 있다.

사실상 瀛洲誌는 여러 執筆者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著者, 年代로 보아 古書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소중한 歷史文獻임에는 異論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執筆者들 가운데는 瀛洲誌가 著者, 또는 年代 未詳이라고 가볍게 흘려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同瀛洲誌는 太宗, 世宗朝의 名臣이고 文章大家이며 高門의 名祖이신 靈谷 高得宗先生이 先代의 昭穆을 後世에 밝히기 위하여 景泰元年(世宗32年庚午=1450)에 刊行한 長興高氏族譜에 지나지 않은 것이나 그 眞本을 찾아내게 됨으로써 史學者뿐 아니라 耽羅의 古代史를 觀照하는데 획기적인 貢獻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瀛洲誌의 眞本은 耽羅開國 三神人の 位次條에서 여러 文獻에 수록된 우리나라 正史와 같이 長曰 良乙那 次曰 高乙那 三曰 夫乙那라고 분명히 記述하고 있다.

史籍의 기록이 이러함에도 不拘하고 일부 史學者들이 말하듯 瀛洲誌는 高得宗先生이 景泰元年에 著述한 후 原本과는 다른 제2, 제3의 瀛洲誌가 등장, 三神人の 位次를 高, 良, 夫등으로 잘못 表記함으로써 史料研究와 史實定立에 窒점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이 問題點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三姓의 位次와 耽羅開國說話의 理解를 增進시키는데 도움을 드리고 史實定立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瀛洲誌」 原本을 다음과 같이 掲載한다.

## 瀛洲誌<原文>

瀛洲在全羅道南海中水路九百七十餘里本九韓之一或稱毛羅九韓時創號或稱耽羅新羅時所封或 稱耽牟羅百濟時所封也亦有泰岳峙其中張左右翼如一字橫鋪名曰漢拏山而以其雲漢可拏引之名也此所謂瀛洲地中之稱神名山也太初無人物忽有三神人從地中湧出于漢拏山北麓壙壤地品字之穴名曰慕興穴三人之出正當九韓時長曰良乙那次曰高乙那三曰夫乙那狀貌甚偉器度寬豁絕無人世之態也皮衣肉食常以遊獵爲事不成家業矣一日登漢拏山上望見紫泥封木函自東海中浮來欲留不去三人相謂曰異哉彼物也降臨就開則內有玉函形如鳥卵坼其封穩然羅衣淑女三人年皆十五六容姿脫俗氣像窈窕各修飾而坐且持駒犢五穀種出置金塘之岸即今朝天館下浦是也三神人自賀曰是天必授我三人也語未畢烏巾紅帶青衣使者亦從函中而出稽首再拜曰我是東海上碧浪國使也吾王生此三女年俱壯長而永不得所耦嘗欲遺與者歲餘頃者吾王登紫霄閣望氣于西溟則氣紫連空瑞色蔥曠中有絕岳湧出三神人將欲開國而各無配匹也因此命臣侍三女而送願用伉儷之禮以成大業已而忽然乘雲而去莫知所之三人即以潔牲告天以

年次分娶之就泉甘土肥處矢射卜地高乙那所居曰第一都漢拏山北一徒里良乙那所居  
 曰第二都漢拏右翼之南山方里夫乙那所居曰第三都漢拏左翼之南土山里自茲以後始  
 成產業植播五穀種且牧駒犢日就富庶遂成人境蓋九百年之後三人各自射石以試勇力  
 高爲上良爲中夫爲下故民心並歸于高氏以高爲君長以良爲臣以夫爲民而國號毛牟以  
 其牟穀茂盛之故也始祖高乙那生時健時健生三繼三繼生日望日望生島濟島濟生彥卿  
 彥卿生寶明寶明生幸天幸天生歡歡生湜湜生煜煜生煌煌生偉偉生瑩瑩生厚孕季三兄  
 弟相繼十五世也此三人造舟渡海泊于耽津(即今康津)蓋新羅盛時也于時客星見于南  
 方太史奏曰異國人來朝之象也俄而厚等至王大喜曰予以否德遽得貴客不亦悅乎以厚  
 爲星主仍其動星象也以孕令出胯下愛如己子稱王子改名清以季爲都內失其名職也國  
 號耽羅以其初泊耽津而朝新羅之名南化國也各賜衣冠寶蓋護還南道車騎輜重大厲百  
 里當此之時子孫蕃盛敬事新羅世受其職以修藩臣之禮新羅烈宗朝耽羅王高聃遣廣巡  
 使良宕按撫使夫繼良入朝于新羅重償爵祿且賜衣冠改良爲梁改夫爲浮蓋梁浮之姓自  
 此始也耽羅主高聃蓋厚之十二世孫也厚生斗命斗命生善主善主生知南知南生聖邦聖  
 邦生文星文星生翼翼生之孝之孝生淑淑生賢方賢方生璣璣生聃皆以服事新羅累世爲  
 藩臣聃卒後季來者曠世不朝東城王二十一年以耽羅不恭朝貢王於是發憤興師率四千  
 騎親征南塞至武瑞舟(即今海縣是也)耽羅南化王高昭聞之遣使允罪乃止其兵昭乃是  
 聃之十七代孫也聃生指雲指雲生瑞瑞生多鳴多鳴生淡淡生體參體參生聲震聲震生鴻  
 鴻生處良處良生遠遠生表崙表崙生迴迴生致道致道生勗勗生天元天元生好恭好恭生  
 昭昭之後世又事百濟文周王改星主爲恩率改國號曰耽牟羅文武王時更封佐平至高麗  
 太祖統合三韓改定法律以高自堅還爲星主越三年遣兵討定耽羅降置郡縣自是高裔通  
 入高麗服爵累世太祖卽位二十年耽羅國王遣太子末老往朝仍賜星主王子爵肅宗時革  
 爲郡毅宗時降爲縣甲午秋林溪高適晦跡山林自足平生元宗三年王聞之廉直使柳希聖  
 命遣安車以迎之卽拜監察御史大夫蓋昭之九代孫也自始祖並計則五十代孫也昭生敬  
 直得爵恩率敬直生岷得封平岷生自堅還得星主自堅生末老末老生維高麗靖宗王乙酉  
 歲首中南省明年丙戌李仁挺榜中以賓貢登第三人官至右僕射維生兆基初名唐愈睿王  
 丁亥韓卽由榜登第官至政堂文學叅知政事進中書侍郎平章吏部事兆基生挺益挺璠誠  
 明三兄弟挺益生適元宗王丁卯登第卽入金闈因覲親還鄉然而累起兵亂故國不安避居  
 林溪郡山 林故子孫居于林溪者亦有之矣元宗八年神義軍三別抄叛入耽羅國家濟師  
 討之盡殲然後以高適爲本州留摠管特令安集餘民戊寅夏赴朝親授金牌繼世遂顯焉又

至十年文幸老金通精等相繼叛亂領三別抄軍雄據珍島王遣侍郎高汝林領兵一千以備之又築長城因以追走入據耽羅越四年王遣金方慶討之忠烈王三年元皇設摠管府營作牧場置牧邑放牛馬駱駝驢羊遣達魯花赤監爲牧子之十六年牧子強暴累殺郡守縣令金庾信討牧子請置萬戶府忠烈王二十年王親朝于元請還屬于我改爲濟州置牧使判官二十六年奇皇后又放廐馬立軍民萬戶府然後仍爲亂邦故高貞乾高巡等隱居不仕三十一年復隸于我忠肅王五年草賊士用嚴卜等作亂討平之改置官吏恭愍王十一年又封高福壽爲星主元牧子等叛高福壽訴于元復設萬戶府十六年元亡大明太祖高皇帝洪武元年戊申卽位是年秋八月復屬于我是時元牧子復爲強盛累殺國家所遣萬戶王奏請大明自署官吏擇牧子所養馬以獻高皇帝許之當時高皇帝子卓卒而無後蓋自清至是凡三十六代而亡以女子孫文臣輔封王子二十一年元牧子石加碑肖古道等自稱東西哈赤殺害官吏越六年王子文臣輔遣其弟文臣吉以聞洪武七年卽恭愍王二十三年甲寅是也是年秋八月遣都統使崔瑩討平哈赤收其餘賊沒入于各司奴婢案洪武二十五年壬申我太祖大王卽位元年二十九年卽太祖五年丙子是也又置牧使建文四年卽太宗二年壬午是也是年冬十月星主高禮鳳王子文忠世等以星主王子之爵似涉僭擬請改之以星主爲左都知管以王子爲右都知管永樂十四年卽太宗十六年丙申從按撫使吳滉之議改置三邑曰濟州大靜旌義正統十年卽世宗二十七年乙丑又革左右都知管以邑中有識人高承祖爲三邑都知上鎮撫蓋適之十二代孫也並計始祖則六十一代孫也適生汝林世在兄弟汝林耽羅妻之子也官至中書侍郎世在林溪妻之子也亦至高官大爵云云汝林生貞幹生巡巡生福壽福壽生因朝秀佐公濟三兄弟因朝襲爵星主因朝之子碩爲西道千戶碩之子順良傳襲星主弟順元繼之順良〈或作元〉之子臣傑爲戶部典書臣傑有四子曰仁鳳義鳳禮鳳智鳳禮鳳之子有三曰得侍得俘得信我智鳳之獨子得宗也不啻獨子抑亦末子之後獨藏族錄於義未安故傳授于四寸兄弟之行深藏勿失遺後萬世焉

景泰元年庚午正月元日崇祿大夫行吏部尙書漢城判尹高得宗謹誌